

노년학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동향

尹 嘉 鉉

생의학의 발달과 같은 문명의 혜택으로 지구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연합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고려할 때, 기껏 1952년에 와서야 국제노년학회 (IAG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라는 실체가 법적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렇지만, <표 1>에 나타난 바처럼 1950년 벨기에 노년학회의 주최로 국제노년학회 학술회의 (Congress of the IAG)가 최초로 Liege시에서 개최되었다. 그렇다면 1993년은 국제노년학회가 창립된 지 43년째이다. 일년 후에는 미국의 Saint Louis시에서 제2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그이후 1981년 독일의 Hamburg시의 제12회 대회까지 매3년마다 학술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제13회 대회부터는 매 4년마다 열리어, 금년에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헝가리의 Budapest시에서 제15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금세기의 마지막 대회가 될 제16회 대회는 1997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호주의 Adelaide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6회 대회의 특징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Adelaide시 이외에 Honolulu에서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Singapore에서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인공위성을 이용한 비디오화면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즉

세 도시중에서 한곳에 머무르더라도 그동안 개최되는 회의에 Video-Conference Link식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표 1〉 국제노년학회의 개최년도 및 장소

회	년도	장소
제1회	1950	Liege (벨기에)
제2회	1951	Saint Louis (미국)
제3회	1954	London (영국)
제4회	1957	Merano (이탈리아)
제5회	1960	San Francisco (미국)
제6회	1963	Copenhagen (덴마크)
제7회	1966	Vienna (오스트리아)
제8회	1969	Washington (미국)
제9회	1972	Kiev (구.소련)
제10회	1975	Jerusalem (이스라엘)
제11회	1978	Tokyo (일본)
제12회	1981	Hamburg (독일)
제13회	1985	New York (미국)
제14회	1989	Acapulco (멕시코)
제15회	1993	Budapest (헝가리)
제16회*	1997	Adelaide (호주)

* 제16회 대회는 예정지임

국제노년학회는 역시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독립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유럽지역 노년학회, 북아메리카지역 노년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노년학회 (Asia/Oceania Reg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및 라틴아메리카지역 노년학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지방의 지역학회도 곧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소속하는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노년학회도 매 4년마다 개최되는데, 최근에는 1991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4회 학술회의가

일본의 Yokohama시에서 열렸다. Yokohama대회에는 주최국인 일본의 학자 700여명을 포함하여, 33개국의 학자 약 1,030여명이 참석했는데, 한국의 학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제5회 대회는 1995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문명의 급속한 성장을 바라보면서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중에서 「어떻게 하면 태초 이래 거의 불변하고 있는 인간의 수명폭(lifespan)을 늘릴 수 있을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도전이야말로 무모한 짓임을 깨닫고서, 이제는 「어떠한 것이 인생의 후반기를 보다 의미있게 보내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번 Budapest시에서 개최된 국제노년학회의 주제도 “Science for healthy aging”이었다. 발표논문들의 주제는 골다공증, 뇌졸중, 치매, 고혈압, 혈관질환, 영양, 간호, 교육, 취업, 성격, 기억, 운동, 장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였지만, 대부분이 건강하고 의미충만한 후반기, 즉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지향하는 것들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성공적인 노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학술회였다.

그러한 조건의 충족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곧 노인복지가 얼마나 잘 실시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관심사가 조금씩은 달랐다. 노인복지가 앞선 선진국에서는 주로 노인성 치매나 성인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관심이 높은 편이었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우선 장애의 노인복지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었다. 아직도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국제노년학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제15회 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하여 참가한 학자들의 국가의 수는 60여개국에 불과했다. 물론 학문적인 목적의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참여한 국가의 학자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6개의 special event session에서 20여명 이상의 발표자가 참여했으며, 2시간의 분량인 symposium session이 53개였는데 여기에는 240여명의 발표자가 참여했고, audiovisual presentation에서도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90분간의 roundtable session이 80개였는데, 350여명의 발표자가 참여했으며, 아울러 106개의 paper session에서 860여편의 논문이 구두로 발표되었다. 역시 poster session에 6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밖에 노화로 인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진 여러 제약회사들의 전시회(exhibition)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중에서 한국의 학자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석한 수는 매우 미흡하여 10여명을 넘지 못했다. 물론 대회장소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금세기말경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국제연합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인데,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발표나 토론보다는 관찰자로 참석한 분들이 일부 계셨지만, Budapest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발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윤진 교수는 「Attitudes on aging : Cross-cultural variations」라는 roundtable session의 좌장으로 초대되었으며, 동교의 성규탁 교수는 「Caregiver stress」라는 roundtable session의 발표자로 참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최성재 교수 (Family and aging : Cross-cultural perspectives의 sess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가옥 박사 (Home care services의 session),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서혜경 박사 (Situation of the elderly in different societies의 session ; 좌장 겸임), 동 연구소의 박재간 소장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의 session), 전남대학교의 윤가현 교수 (Diagnostic aspects of psychogeriatric disorders의 session ; 좌장 겸임) 등이 논문을 구두로 발표했으며, 목포전문대학 조유향 교수와 대한노인회

의 백창현 부회장이 각각 「Population aging trend in Korea」와 「Role of Korean elderly for community development」라는 논문을 poster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자로 국제노년학회에 정식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연세대학교 윤진 교수 등이 효시로 1981년 제12회 대회부터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 대회의 참가자의 수는 증폭했지만 그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도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술한 지리적인 조건 이외에 교통비, 등록비, 체제비 등을 거의 참가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때문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등의 관계부처가 노년학에 관한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했었다면,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장래의 복지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같은 아쉬움이 들었다.

* 이 글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년학연구회 학술발표회 개최상황

1991. 5.11 창립총회

1991. 6.29 하계집담회

발표자 : 송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제 목 : 노년학 연구의 필요성

1991. 9.28 제 1 회 (1991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전남대학교 제2학생회관 회의실

좌 장 : 이영철 교수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 박재간 소장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제 목 : 노인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자 : 송은규 교수 (전남대학교 의학과 정형외과학교
실)

제 목 : 노인과 관절염

발표자 : 윤 진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인생회고과정을 통한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연구

발표자 : 조유향 교수 (목포전문대학 간호과)

제 목 : 말기환자에 대한 간호와 Hospice적 접근방법

발표자 : 서혜경 교수 (광주대학교 보건학)

제 목 : 죽음의 준비를 위한 후기성인교육

발표자 : 박무정 교감 (광주 태봉국민학교)

제 목 : 연령증가에 따른 지각과제수행능력의 차이

발표자 : 김창국 교수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김수인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제 목 :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건축설계연구

1991.12.13. 동계집담회

발표자 : 김 미 교수 (광주보건전문대학 보건행정과)

김광운 교수 (광주보건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중년기 개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

1992. 3. 20. 춘계집담회

발표자 : 조옥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신효식 교수 (전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홀로된 여성의 생활 만족도

1992. 7. 4. 하계집담회

발표자 : 조희량 교수 (목포전문대학)

장 소 :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주 제 : 노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1992. 9.26. 제 2 회 (1992년도) 정기학술대회

장 소 :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좌 장 : 김경신 교수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발표자 : 전정태 교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제 목 : 노인교육의 현실적 고찰

발표자 : 한영현 교수 (광주보건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제 목 : 재가노인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자 : 박준섭 박사 (광주대학교 강사)

김순홍 교수 (광주대학교, 사회학)

제 목 : 광주권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발표자 : 최정혜 교수 (진주교육대학 실업교육과)

제 목 :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갈등관계

좌 장 : 정승희 교수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발표자 : 문옥륜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제 목 : 노인의료 이용양상에 대한 지역별 차이

발표자 : 조유향 교수 (목포전문대학 간호과)

제 목 : 노인의 구강보건 실태와 간호관리

발표자 :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목 : 시각의 노화과정에 따른 행동특성의 변화

발표자 : 오미성 교수 (순천간호전문대학)

제 목 : 연령에 따른 죽음에 대한 불안과 영적인 안녕의
관계

1992.12.11. 동계집담회

발표자 : 임형택 교수 (광주대학교 산업교육과)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노인교육

1993. 3.24. 춘계집담회

발표자 : 정영해 박사 (Ph. D. in biostatistics, Univ. of
Iowa)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Leg pain in the rural Iowa 65⁺ population

1993. 6.19. 하계집담회

발표자 : 조 현 교수 (춘천전문대학)

장 소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세미나실

주 제 : Hospice

1993. 9.18. 제 3 회 (1993년도) 정기학술대회 (예정)

장 소 : 경산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대구직할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소재)